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 () 보도자료 제공 (✓)
보도일시	2021. 8. 17.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 성 과	투자유치기획과
담 당	과장 정경원, 투자기획팀장 김윤영, 담당 이의환(032-453-7306)

‘IFEZ 투자에 관심있는 잠재 기업을 찾아라’

인천경제청, MOU 체결 미국 샌 버나디노 카운티와 온라인 투자 세미나 개최
항공·헬스케어 등 40여개사 참가·IFEZ 투자 성공사례 등에 많은 관심 표명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미국 샌 버나디노 카운티(San Bernadino County)와 함께 ‘How to do business with Korea(부제: 한국진출 전략)’를 주제로 온라인 웹세미나(웹비나)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.
- 웹비나는 인천경제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샌 버나디노 카운티를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투자유치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IFEZ(인천경제자유구역)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 기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.
- 웹비나에는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항공, 헬스케어 등 제조기업 40여 개 사가 참가했다. 인천경제청은 송도·영종·청라국제도시에 입주한 ‘포춘(Fortune)500’ 기업들을 소개하고 특히 보잉, P&W 등 항공 기업이 입주한 영종국제도시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, 헬러만 타이톤, 브로제 코리아 등 자동차 산업(부품)사가 입주한 송도국제도시 등의 IFEZ 투자 성공사례도 알렸다. 이와함께 기업 입주 시 각종 혜택, 우수 인력 확보가 쉬운 점 등도 적극 홍보했다.

- 이날 웹비나에 참가한 미국 기업들은 투자 입지로서의 IFEZ가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, 항공·부품관련 입주기업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.
-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FEZ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온라인으로 초청, 1:1 투자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
- 김태권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“앞으로 우수 전시·박람회를 적극 활용, 잠재 투자자 네트워크를 늘리고 집중 투자유치 타겟 기업들을 대상으로 IR 행사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- 한편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가스(Las Vegas) 사이에 위치한 24개의 군소 도시 집합체다.
- 인근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개발청(Economic Development Agency)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온라인으로 지난 2019년 4월 맺은 경제 협력 및 상호교류를 연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.